

Zephaniah 1:1-18 Sermon: 'God's Judgement, Our Responsibilities'

스바냐 1:1-18 설교: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의무'

Daryl Jackson

Introduction

What do we know about God's characteristics, His attributes?

I'm sure many of us can confidently declare that God is full of mercy and grace, and love. And that is true. God is full of mercy, grace and love. Our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points to the truth of these things.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장점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사랑이 넘치신다고 자신있게 주장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은혜,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How about God's holiness and justice? These characteristics can also be seen through Jesus' sacrifice for our sins, but are sometimes less understood. For example, people often wonder, 'How can a loving God do that, or allow that to happen?' But in saying that, there's a danger of focusing overly on only one of God's many characteristics. God isn't only a God of love, just as you and I aren't made up of only one single characteristic.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어떻습니까? 이 성품들도 역시 우리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종종 덜 이해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게 하실수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하나님의 많은 성품가운데 하나만을 강조할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한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처럼, 단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This exact sort of situation may happen now, as we look at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Zephaniah. You may read this and think, 'That doesn't seem very loving! Where's the love God shows in the New Testament?'. The fact is, God's love is still there. In fact, you could say that God's declaration of judgement here in today's passage is because of His love for His people. If God didn't love His people, then He probably wouldn't care what they were doing.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이 스바냐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은 사랑이 대단히 많으신것 같지 않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안에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던 일들을 신경쓰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But also, other characteristics of God are present here, such as His holiness and His justice too. God is holy. He cannot be in the presence of sin, and where was the one place on earth where God's presence dwelt at that time? In the temple in Jerusalem.

Because of God's justice, He also couldn't simply ignore what His people were doing. They were sinning, and sin required punishment. So keep in mind God's characteristics as we go through this passage today, and as we go through this book of Zephaniah together in coming weeks. Because there's much we can learn about our God from His Word.

하지만,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같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 또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죄의 존재안에 거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하나님의 존재가 거했던 지구상의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인해, 그는 또한 그의 백성이 하는 일을 그저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 죄에는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다가올 몇주일동안 함께 스바냐를 살펴볼때, 하나님의 성품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Now then, a bit of brief background for the book of Zephaniah.

As we heard from our first Bible reading in 2 Kings ch.21 earlier, God's people at the time of Zephaniah were behaving pretty poorly. Yes, their kings of the previous 57 years had been bad - Manasseh, one of the worst kings in Israel's history, followed briefly by his son Amon - but the people themselves were hardly complaining or protesting about things.

In fact, 2 Kings 21:9 says, for example, *'But the people did not listen. Manasseh led them astray, so that they did more evil than the nations the LORD had destroyed before the Israelites'*.

이제 그렇다면, 성경 스바냐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에서 전에 읽었던 것처럼, 스바냐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전 57년간의 왕들은 좋지 않았습니다-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왕들중 하나인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으로 이어졌지만 당시 사람들 스스로는 거의 불평하거나 이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21:9 절에서는, "그들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Following on from Manasseh and Amon, Israel next had a good king, one of their best kings, Josiah. He led Israel in a time of great reform, after the Book of the Law was rediscovered, found in the Temple. He worked at getting rid of many of the bad things God speaks of in the book of Zephaniah. But by then, unfortunately, it was too little, too late. Because of all that Israel had done, especially during Manasseh's time, God was tired of being mistreated and neglected by His people. He is a holy God, and requires His people to live in a godly way. Therefore, His judgement was coming upon Israel. Which is where Zephaniah comes into the picture.

므낫세와 아몬왕으로부터 이어져, 다음의 이스라엘은 좋은 왕, 최고의 왕들중 하나인 요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서를 다시 찾은 후에 위대한 개혁의 시기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는 스바냐서에 있는 하나님이 말한 많은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시기에는 너무 짧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것으로 인해, 특히 므낫세왕 시기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 혹사되고 무시되어지는것을 더이상 견딜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왕이고,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방식으로 살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판이 스바냐가 예언한것처럼 이스라엘에 내리게 됩니다.

Now, Zephaniah served as a prophet of God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v.1 of ch.1 of Zephaniah tells us. Given what God says in this book, and what's said about Josiah's time in 2 Kings, it's safe to say that Zephaniah prophesied in the early days of Josiah's reign, before Josiah's great reforms. And God had a clear message to His people through Zephaniah: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God's judgement is coming.

스바냐가 우리에게 1장1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이제 요시야 왕의 지배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요시야에 관하여 말한것처럼, 스바냐가, 요시야의 대개혁 전, 요시야 지배 초기에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Now today, we're going to look at ch.1 of Zephaniah, v.1-18, which focuses on this declaration by God of impending judgement. In looking at this chapter, I thought we could consider:

1. Firstly, what this passage meant for God's people in Zephaniah's time,
2. And then secondly, what we today can get from this passage.

이제 오늘 우리는 스바냐 1절, 1-18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것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저는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이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부터 무엇을 얻을수 있는지.

1. God's people in Zephaniah's time 스바냐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So then, firstly, our focus is on Old Testament Israel. More specifically, those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of the city of Jerusalem during the time of Zephaniah, as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ad already been wiped out by God's judgement upon them. Overall, God declares in v.17 of today's passage that people have sinned against Him. That's pretty clear and straightforward. '*...they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v.17 says. But what exactly were they doing at this time, to cause God's declaration of coming judgement? Well, within this chapter, three main sins of God's people are mentioned. We have in v.4, 5, and 9: idolatry. In v.5: syncretism. And in v.6 and 12: religious indifference.

우선 우리의 초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쓸려나갔기에, 남왕국과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17절에서, 사람들은 그에 대적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꽤 명백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다"고 17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만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으로 볼때, 세가지 주요한 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 5, 9절: 우상숭배, 5절: 혼합주의, 그리고 6, 12절: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Regarding idolatry, there were some amongst God's people who were worshipping Baal, v.4 tells us. Now, Baal was a false god, who had been worshipped by the Canaanites - the people living in the Promised Land before Israel conquered it. God had already warned His people not to follow after the gods of the Canaanite people (Deut 6:14-15). Baal worship amongst Israel had already been confronted strongly by God during the time of the prophet Elijah. Yet here they were, at it again, including some of the priests in God's Temple! V.5 also makes mention of those bowing down to the hosts of the heavens, as well as those swearing by Molech, a false god of the Ammonites.

우상숭배에 관하여는,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몇몇 그룹이 있었다고 4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습니다(신명기 6:14-15). 바알은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강력히 맞닥들인 바 있지만 여전히 몇몇 제사장들을 포함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5절은 또한 암몬족속의 가짜왕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lso then, in v.9, mention is made of '*...all who avoid stepping on the threshold...*'. This too relates to idolatry - to pagan worship, where people would avoid stepping on the threshold of the pagan temple, pointing to the fact that people were worshipping other false gods instead of the one true God. From these verses, you can see that unfortunately, idolatry at the time was widespread.

또한 9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턱을 뛰어 넘어서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우상숭배-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방인의 성전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 즉 이방인 숭배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당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Next, syncretism is also mentioned, in v.5. Syncretism basically refers to when different religious practices are merged together. Specific mention is made of those who were bowing down and swearing by the LORD and who were also swearing by Molech. This charge may also include some of the priests, who were involved in worshipping God in the Temple, but who were also happy to have a variety of altars set up in the Temple for worshipping false gods.

다음으로 혼합주의가 5절에서 또한 언급되는데요, 혼합주의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 행위들이 함께 혼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에게 또한 맹세하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이 죄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연류되어 있지만 또한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재단을 놓는것을 마다하지 않는 몇몇 제사장들도 포함합니다.

Finally then, mention is made of religious indifference. One example of this is given in v.6 - '*... those who turn back from following the LORD and neither seek the LORD nor enquire of him*'. Another example is in v.12, mentioning '*...those who are complacent...who think, 'The LORD will do nothing, either good or bad.'*'. These sort of people just didn't care about God any longer. They were indifferent towards Him. Some had turned their backs on God altogether, while others saw God as being morally relaxed towards good and evil.

마지막으로 종교적 무관심이 언급됩니다. 한 예로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12절에서 "무관심한 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화를 주시지도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더이상 하나님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과 악에 도덕적으로 느긋한 분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And really, you can see how these three problem areas I've mentioned can all work together. People who are indifferent towards God don't really care what God thinks, or they think that God Himself doesn't care about anything either. So they just do what they want, leading to things like idolatry and syncretism. The only problem for such people, is that God does care about what they're doing. And so, what does God say as a result of these sins of His people? V.4: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Judah and against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n, from v.4 to v.13, He states that they will be cut off, they will be punished. He also says twice that the day of the LORD is near. Near and coming quickly.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제가 언급한 이 세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일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도 어느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같은 것들에 이끌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라고 4절에서 시작하여 13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할 것이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두번이나 말합니다.

가까웠고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Now, for those in Judah and Jerusalem, they should have been somewhat familiar with the phrase 'the day of the LORD'. For example, they would have known that the prophet Isaiah used it several times, interestingly against Israel as well as against other nations. They may also have heard of the prophet Amos in the recent past mentioning the day of the LORD, when he spoke God's words of judgement agains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before it was destroyed. Regardless of prior knowledge though, the phrase's meaning would have been very clear from within this first chapter of Zephaniah alone. The day of the LORD meant a time of God's judgement. It was not a good phrase to have directed at you.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다소 익숙해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족속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에 그것을 세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선지자 아모스가 지난 최근에, 이스라엘의 남왕국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할때 여호와의 날을 언급했던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있건 없건, 이 말의 뜻은 사바냐의 첫장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전달되었다면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을것입니다.

But that's exactly the situation that God's people find themselves in here. After beginning by speaking about a time of universal judgement, in v.2-3, God quickly singles out Judah and Jerusalem. This would have got the attention of God's people, but would not have been received well. Because at this time, God's people hadn't seen any need to change their behaviour. Otherwise they would have changed already. As 2 Kings says, they were led astray, they weren't listening to

God's commands. They had see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destroyed in the recent past - because of God's judgement against them. Yet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still didn't get it. And so, God's judgement was coming upon them.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발견한 것이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2-3절에서 전체적인 심판의 날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 후에, 하나님은 재빨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꼭집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다지 잘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의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이미 변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 남왕국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Even though they now had a good king, Josiah, it wasn't enough. In fact, 2 Kings 23:26-27 speaks about this time of Josiah's reforms, where he worked to turn God's people back to God, saying: *'Nevertheless, the LORD did not turn away from the heat of his fierce anger, which burned against Judah because of all that Manasseh had done to provoke him to anger. So the LORD said, "I will remove Judah also from my presence as I removed Israel, and I will reject Jerusalem, the city I chose, and this temple, about which I said, "There shall my Name be"'.*

비록 그들이 이제 요시아라는 좋은 왕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23:26-27절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개혁의 시기 당시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라고 합니다.

Zephaniah goes on to provide a description of what God's judgement would be like, in vivid language from v.14-18. It will be a day of: wrath, of distress and anguish, of trouble and ruin, of darkness and gloom, of clouds and blackness, and of trumpet and battle cry. People will walk like blind men because of their sin. Silver nor gold will be able to save them. These words describe a terrible day, of destruction and suffering. And from our position today looking back at history, we can see that what God said here was true. His judgement fell on God's people not long after this time of Zephaniah. The remaining southern nation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were conquered by the Babylonians, and God's people taken off into exile, with only a remnant to return some 70 years later. Jerusalem and God's temple were burned and destroyed. God's wrath was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14-18절에 생생한 언어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절망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장님처럼 걷게 될 것입니다.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단어들에 파괴와 고통의 끔찍한 날을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스바냐의 시대 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내려졌습니다.

2. God's people today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Which then brings us to us, living today. How do God's words in this chapter speak to us?

Well firstly,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phrase 'the day of the LORD' doesn't just refer to ev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While it's true that this phrase was used many times in the Old Testament, referring to judgement against Israel or their neighbours at that time, it also has great significance for Christians today. Because all those times of 'the day of the LORD' in the past were mere shadows, pointing forward to a final great 'day of the LORD' that is still to come.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이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글썄요, 우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그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당시 이웃부족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여러번 사용된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호와의 날”은 단지, 아직 오지않은 마지막의 위대한 ‘여호와의 날’을 미리 가르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God’s words in v.2-3 of ch.1 of Zephaniah here actually relate to that future event. A time when everything will be swept away from the face of the earth. Men and animals, birds and fish. Man will be cut off from the face of the earth, God declares. The second half of v.18 also speaks of that time: *‘In the fire of his jealousy the whole world will be consumed, for he will make a sudden end of all who live in the earth’.*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2-3절은 실제로 미래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모든것이 이 땅에서 쓸려나갈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과 동물들, 새와 물고기들. 사람들은 지구에서 멸절될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18절 두번째 중간에서는 그 때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 온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가 이땅에 사는 모든이를 갑자기 멸절하리라’.

The New Testament writers also spoke of this coming day. For example, consider the Apostle Peter’s words, in 2 Peter ch.3. v.1-10. Let me read them to you: *‘Dear friends, this is now my second letter to you. I have written both of them as reminders to stimulate you to wholesome thinking. I want you to recall the words spoken in the past by the holy prophets and the command given by our Lord and Saviour through your apostles. First of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coffing and following their own evil desires. They will say,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Ever since our fathers died, everything goes on as it has since the beginning of creation.” But they deliberately forget that long ago by God’s word the heavens existed and the earth was formed out of water and by water. By these waters also the world of that time was deluged and destroyed. By the same word the present heavens and earth are reserved for fire, being kept for the day of judgement and destruction of ungodly men.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re like a day.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신약의 저자들 또한 이 날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10절을 보십시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네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된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하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하신바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같이 더딘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Peter wants us to recall what was said in the past by God’s prophets - by people such as Zephaniah. The prophets spoke of what was to come. Peter then mentions about a day of judgement that is coming - the day of the Lord, he says in v.10. This ‘day of the Lord’ is the day of final judgement upon the earth. The day of Jesus Christ’s second Coming, when He returns to earth in judgement.

When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 as Zephaniah prophesied in v.2-3 of the main passage we're looking at today (Zephaniah ch.1). That is what lies ahead in the future.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Only God knows when, but it is coming soon. His judgement declared against Old Testament Israel came true soon enough, and so we can be sure that His declaration of final judgement is also going to come true. And as we consider Zephaniah's words in today's passage, we can learn more about why God's final judgement is coming on the whole earth. Because people today, sadly, are behaving in a similar way to God's people in Zephaniah's time.

베드로는 우리가 과거에 선지자들- 바로 스바냐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말해진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게될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10절에서 그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지구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돌아오실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지구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스바냐가 2-3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것이 미래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바로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날은 곧 올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일찍 왔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또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스바냐의 말씀을 생각할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온 세상에 관한 것임을 더 잘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스바냐의 시대와 비슷한 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member the three main problem areas mentioned in this passage? Idolatry; syncretism; religious indifference. And the overall charge against humanity? V.17: They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s it was then, it unfortunately is now. For example, in today's world, idolatry - the worshipping of something other than God, as if it were God - has been developed into something of an art form, as people seem to come up with increasingly new ways of forming idols.

Of course, that long-time favourite idol to worship - money - is still high up there. But we also now have people who increasingly worship themselves, particularly through the use of social media. Pets also have become idols for some. Careers, achievements, popularity, fame. Anything and everything other than God is worshipped.

이 본문말씀에서 언급되었던 세가지 주요한 문제점들을 기억해보십시오. 우상숭배, 혼합주의, 종교적 무관심. 그리고 인본주의에 반한 대부분의 혐의는 어떻습니까? 17절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우상-하나님외에 다른것을 마치 하나님인양 숭배하는것이 사람들이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감에 따라, 마치 예술형식의 어떤것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도록 숭배되어왔던 우상은 돈이고, 여전히 그것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특히 사교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압니다. 애완동물도 또한 몇몇이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 업적, 인기, 명성. 하나님외에 모든것, 아무것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Next, consider syncretism. When we think of syncretism today, we can often think of examples from tribal cultures, such as in some parts of Africa, where elements of tribal religion are joined with Christianity. But it's also happening in Western countries too. For example, churches that take out the gospel and replace it with general positive thinking - where you can try hard to be a better person in your own strength. That's a form of syncretism. As with churches that advocate for same-sex marriage or gay ministers. They're joining and mixing Christianity with aspects of modern culture that the Bible clearly condemns.

다음으로 혼합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혼합주의라 함은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 옛 부족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되어 섞여지는 예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구 사회에도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일반적인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And also, religious indifference. This is the big one, I think. For many people in today's world, they don't care what God thinks. They don't even believe He exists! Others are like as God says in Zephaniah: They have turned back from following the LORD, they neither seek the LORD nor inquire of Him. Others too think that God will do nothing, either good or bad. They view God as an absent Creator - who created everything and now just ignores us all. Peter speaks of such people in his

second letter, in 2 Peter 3:3-4, which I recently read out: *'First of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coffing and following their own evil desires. They will say,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Ever since our fathers died, everything goes on as it has since the beginning of creation"'. Complacent, religious indifference.*

그리고 또한 종교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재의 창조자-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를 저버린 하나님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둘째 편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제가 조금 전 읽었던 벵후 3:3-4: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 저 무심한 종교적 무관심입니다.

Today's world has taken to extremes these things mentioned here in Zephaniah. And people do many other things as well that God disapproves of - these are all sins against God. So then, if in Old Testament times, God's judgement and wrath came upon His own people because of their poor behaviour, what do you think is in store for today's world that has rejected God? A world that is actively sinning against God, that is living in open rebellion against God? Well, even way back in Old Testament times, God warned us what was coming - the day of the LORD. In the New Testament too, God warned us -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the final judgement is coming, where God will judge the world and many will face His wrath. And here we are now, living in the last days. Jesus' second Com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오늘날 세상은 스바냐가 여기 언급한 극단적인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합니다-이것이 하나님에 대적인 모든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약시대였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때문에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오늘날 세상에서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적해 범죄하였고, 하나님에 대적인 공개된 거역안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볼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고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올것을, 하나님이 그의 진노로 세상과 많은 이들을 맞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올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고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머지않아 올것입니다.

Yet all is not without hope for the world. Yes, God's judgement is coming and will come against all the wickedness and ungodliness of humanity. But there is still hope. There is still good news to be told. Because there is a way for people to avoid God's wrath. As God's people today, we know that way -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Because of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have no fear from God's coming final judgement. We know, as Romans 8:1 says, that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Jesus,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paid the price for our sins. He took on our punishment Himself. He took on God's wrath and judgement that should have been against us. So that now, instead of wrath and judgement, we now face eternal life together with God. We can read a passage like this one today, and know that it doesn't apply to us.

그러나 모두가 희망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있고 모든 인류의 사악함과 경건치 못함은 대적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소식이 말해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Application 삶의 적용

But, in this though,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A couple of responsibilities actual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두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1. Firstly, we have a responsibility to behave well as God's people.

Peter speaks of this, following on from what I read out earlier. He says in 2 Peter 3:11-13: *'Since everything will be destroyed in this way,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That day will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heavens by fire, and the elements will melt in the heat.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home of righteousness'*. We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That is the kind of people we ought to be, as we look forward to eternity with God. Not being like God's people mentioned here in Zephaniah. Not being like the world today. Instead, a people who live for God. Who put God first and who obey His commands. We can do this, for example, by reading and studying the Bible, which is God's revelation for us. Because, if we don't know the Bible well, if we don't bother reading or studying it, then how can we expect to live well for God? God's people in Zephaniah's time didn't seem to know God well, leading to sin and disobedience. However, if we know and understand the Bible well, through reading and studying it, then we can know how God is wanting us to live, and can live holy and godly lives.

1,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벧후3:11-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불멸을 고대해야 합니다. 스바냐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시 두는 사람,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이끌어지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잘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하는 방식을 알수있고,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함 삶을 살수 있습니다.

2. Which then brings us to a second responsibility we have, which is to tell others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 the forgiveness of sins!

If you read on from Zephaniah ch.1, into the beginning of ch.2, v.3 of ch.2 says, *'Seek the LORD, all you humble of the land, you who do what he commands. Seek righteousness, seek humility; perhaps you will be sheltered on the day of the LORD's anger'*. There is a way to avoid God's wrath and judgement! God even said so in Zephaniah's time. How? By repenting and living for God, in righteousness and humility. By believing that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and turning, repenting from those sins.

No longer living lives containing idolatry, syncretism, religious indifference, or any other sins against God.

2, 우리가 갖는 두번째 의무는 다른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죄에 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바냐 1장에서 2장으로 읽어갈때, 2장 3절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의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공의와 겸손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더이상 우상숭배, 혼합주의, 종교적 무관심, 또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포함한 삶을 살지않음으로!

However, for people to be able to turn away from sin and turn to God, they first need to hear about Jesus. They need to hear about how they should be living. We Christians are commanded to go and decl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Are we doing this? Are we doing as Peter says in the verses I just mentioned, and looking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ing its coming? Because if we aren't carrying out these responsibilities, then are we really living any better than God's people in Zephaniah's time? We know they faced God's wrath and judgement because of their behaviour. Passages like today's from Zephaniah should cause us to evaluate our own lives as God's people living today, and recommit to all that God commands of us. For history tells us that what God said here was true. His judgement soon came on His people living in Judah and Jerusalem, because of their sin. May we be thankful that such a fate has been spared us, through God's great mercy and grace. And may that mercy and grace spur us on to share God's good news throughout the world.

하지만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에 관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서 선포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언급한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며 그것이 속히 오도록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바냐 때의 하나님의 백성보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행동때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것 모든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곧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자비와 은혜로 그러한 운명에서 우리를 보존하신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비와 은혜가 세상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onclusion

So then, Zephaniah ch.1. A chapter that speaks of God's judgement upon His people of that time. And a chapter that speaks to us now too.

Reminding us that while our God is a merciful, gracious and loving God, He is also holy and just. Sin cannot go on unpunished. A final judgement upon the world is coming -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스바냐 1장은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반면, 그는 거룩하시고 공정하십니다. 죄는 처벌없이 지나갈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여호와의 그날.

And reminding us too of the responsibilities we have as God's people today.

Let's make sure we're living holy and godly lives, as we carry out God's commands, including proclaiming a message of hope - the good news of Jesus to the world: Repent of your sins, believe in Jesus, be saved from God's wrath and judgement and from hell, and instead ha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ogether with God.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의무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의 메세지-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부터 보존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약속을 가집시다